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위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4시간정도 걸리는 정도이지만, 이번에는 레딩공항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레딩으로 다시한번 비행기를 탔다.</p> <p>우리학교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나름 학교내에 campus saftey와 수영장 등이 있을 정도로 작지만은 않은 college 였다고 생각한다. 일단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없어서 조용했고 밤에는 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한 시골 대학이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크게 웹디자인 수업과 esl수업으로 나뉘는데 먼저 웹디자인 수업부터 설명해보겠다.</p> <p>웹디자인수업은 오전 09~12시 까지 거의 매일 배치되어있다고 보명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매우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난 이도 자체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다.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다. 강사가 하나하나 모르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필요도 없고 마지막의 2~3일 정도는 거의 수업보다는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수업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 및 수업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p> <p>두 번째로 esl 수업은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멕시코 출신 강사로 알고 있다. 수업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원어민이 아닌 강사에게 영어를 따로 배울 필요는 지금까지</p>

	<p>도 느끼지 못하겠다. 과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초기 수업 때는 말하기와 듣기 위주보다는 Writing 수업이 많았다. 그리고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 대학 담당자에게 학생들이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상당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해당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한국학생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학생들조차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엑티비티는 워낙 많은 것을 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관람, 터틀베이(sundanial brige) 견학, 샌프란시스코 투어, 폴파티, 카약킹, 샤스타 동굴, 샤스타 댐, 워터파크, 물공장 견학, 의료시설 견학, burney fall(폭포) 관람 및 하이킹등이 있다.</p> <p>정말 많은 것들을 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shasta college 미국학생들과 함께해서 더욱 더 좋았다.</p> <p>준비물은 해당 필드트립 가기 전날 shata college 담당자가 단독방에 올려준다. 그러한 준비물들은 이미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순천향대 담당자가 Shata college 쪽에서 받은 안내문을 참가자들에게 배부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추가비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된다. 본인이 기념품 가게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면 부가비용이 들겠지만 필드트립 시간에 따로 내야할 것은 없다고 보된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매우 덥다. 하지만 건조하다. 온도는 대개 40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모자와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캠퍼스내에 campus safety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지만 그 외 밤에 밖으로 혼자 나가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현지친구들이 말을 해주었다 다니더라도 단체로 다녀야한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시설은 일단 우리학교 기숙사보다 좋다. 방의 크기와 침대 역시 한침대에서 둘이 자는 2층 침대가 아니라 침대+책상 형식으로 한사람 당 가구 한 개씩 이용가능하다.</p>

식사	<p>학교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식당은 일단 매우 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햄버거가 매우 많이 나온다. 모든게 다 짜다. 그래서 밤에는 밖에서 사먹을 때도 자주 있었다.</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대중교통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편된다. 해봐야 우버택시를 이용가능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보통 미국현지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비행항공료	1,700,000	
간식 및 기타 식재료	70,000	
기념품	60,000	
외식비	100,000	
합계	1,96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다. 국제교류처 오티 시간에 담당자가 본인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직접 구입해도 된다고 했다. 사실 본인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별로 차이가 안날 것 같아서 국제교류처에서 단체로 구입했다.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직접 구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름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아쉽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먼저 이런 경험 자체는 대학 시절 외에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하게 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런 경험은 하기 쉽지가 않다. 미국현지 친구들이 본인 가족들 집에 초대하여 미국 가정집을 경험하기도 할 수도 있고 미국현지 친구들을 사귀면서 보다 미국 문화를 제대로 느낄수 있다. 일단 이렇게 타국의 한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졸업 이후 거의 없을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설명: shata cavern



사진설명: 독립기념일 레딩시청 행사



사진설명: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사진설명: 카약활동



사진설명: 워터파크



사진설명: 샬스타 의료 기관 방문